

2016 새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기업 유치·고용 창출·시민참여행정...‘행복수도’ 광양 건설”



“2016년을 광양시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확장하고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7일 “1만개 일자리 창출과 153개 우량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소통·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 행복도시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시민을 직접 만나는 ‘해피데이’를, 매주 화요일에는 주요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날”을, 매달 이 통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토크’를, 시민이 시정을 감사하는 ‘시민 명예감사관제’를, 시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시민과의 소통에 기초를 둔 시민 참여행정을 통해 ‘전남 제1의 경제도시’, ‘행복수도’ 광양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남도립미술관과 전남 동부권 예술고를 유치한 목적을 바탕으로 세풍·조남·익산·신금·명당산단에 철강과 신소재산업, 항만 연관 기

철강·신소재·항만 등 성장동력 발굴

임신·출산·교육...생애 맞춤형 서비스

시민 명예 감사·참여 예산제 확대

업을 끌어들이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목성지구, 성황·도이지구,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등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준비하고 있다.

정 시장은 올해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시장은 “광양은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37.3세, 아동과 청소년 비율 25%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면서 “도시의 특성에 맞게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최초 보육재단 설립, 공공

보육시설 확충, 도서관 구축 등 모두 124개 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는 또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결과 꾸준한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명문 교육 도시의 반열에 올랐다”며 “광양시의 미래가 걸린 도시 특성에 맞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대한민국 행복수도’를 실현해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 그물망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지역사회 보강협의체 운영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1365 자원봉사 릴레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요별·계층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장

2016년 주요 역점 사업은

- ▲경쟁력 강화로 활기찬 도시 건설
- ▲시민이 행복한 보육, 교육, 복지 도시 구현
- ▲감성 있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실현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녹색생태도시 구축
- ▲경쟁력 있는 부자 농촌 만들기 사업 강화

에인 재활시설 건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 2배 늘리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공모’,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공모’, ‘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장난감 도서관 및 키즈카페 개설’, ‘어린이집 신축과 환경개선’, ‘어린이 놀이터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 시장의 의지다.

정 시장은 이 밖에도 안전지수 1등급 도시 건설과 공원 조성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실현, 유동 혁신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 시정에 시민 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으로 날 보러와요”

매화축제 3월18일~27일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도시 속 어린이 세상

덕례 생태놀이터 준공

광양시는 7일 “광양을 덕례리 덕산마을 공원부지에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연 생태를 접할 수 있는 ‘덕례 생태놀이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착공한 생태놀이터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000만원이 투입돼 4500㎡(1400평) 부지에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됐다.

덕례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동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공간을 비롯한 모험심과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모험 공간, 미끄럼틀·모래놀이·자갈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 파고라 등 휴게시설이 있는 개방공간 등 총 4가지 공간이 구성돼 있다.

김재희 광양시 생활환경팀장은 “덕례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꾸며졌다”면서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기르고,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시 교통과와 광양시 모범운전자회, 광양시 녹색어머니회가 최근 광양 컨부두사거리 육교에서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시장님도 운전기사들도 ‘배려 교통문화’ 실천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 확산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인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이 광양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려 교통문화실천운동 캠페인은 인기 작곡가 ‘이단열차기’의 재능기부곡인 ‘배려 로고송’에 맞춰 신나는 ‘배려 율동’을 한 뒤 전용 페이스북(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 동영상 올리고, 다음 릴레이 주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공직자 다짐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최근에는 광양시 교통과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해 컨부두사거리 육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영상으로 촬영해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전용 페이스북과 광양시 대표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송로종 광양시 교통과장은 “보복운전 예방, 여성 및 초보운전자 배려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는 7일 “제19회 광양매화축제”를 오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압면 매화마을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행사장인 매화마을에서는 매실음식 경연대회와 메아리 캠프장, 매화사생대회, 매화분재 전시회, 매화공예품 만들기, 매실비누 만들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추억의 교복체험’과 엽서를 1년 후에 배달해주는 ‘느림보 우체통’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특히 개막 첫날인 3월 18일 오후 2시에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남도대학교에서 섬진강을 건 구례군, 하동군, 광양시 등 3개 시·군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융지 큰줄다리기’ 등 영호남 화합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광양시 진 촬영대회, 망덕포구 강변카페, 전여잡이 소리 시연, 신촌 음악회, 여수·순천·광양 시립예술단

교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광양매화축제는 매년 1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표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1천 5백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시는 매화축제에 ‘전남도 대표축제’를 넘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집합 / 인원점검 후 출발	06:30~	기상 / 세면
08:20~11:30	버스로 이동, 캠프장소 도착	07:30~08:30	즐거운 아침식사
11:30~12:00	인원파악, 숙소배정 및 짐정리	08:30~12: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2:00~13:00	점심식사(도시락지참)	12:30~13:00	장비반납 / 점심식사
13:00~17: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3:00~16:30	인원 점검 후 출발
17:30~19:00	석식 및 휴식	16:30~	귀가
19:00~21:00	야간 스케이팅(리프트포함)		
22:00~	점호 및 취침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